

다니엘서 - 제146번

예언의 실타래를 풀다: 최후의 대통령, 독재, 그리고 임박한 주일법

Jeff Pippenger

2024-03-19

우리는 곧 다가올 일요일법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때에 존재하는 예언적 환경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다. 어떤 일도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땅의 짐승의 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다. 그의 견해에 공감하는 이들은 그가 왜 높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독재자의 역할을 맡지 않고서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독재자는 독재자가 시도하는 일을 높은 비율의 국민이 지지할 때 나타난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빵 한 덩이를 사려면 현금이 손수레 한가득 필요했다.

히틀러는 그것을 뒤집었고, 독일인들은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히틀러는 그가 한 일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은 시민들 사이에 구분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지금 선이 그어지고 있다. 혁명 전쟁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와 맞물리는 준비의 시기를 나타낸다. Patriot Act는 혁명 전쟁의 영적 반복의 시작을 알렸다. 예수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며, 땅의 짐승은 혁명 전쟁으로 시작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은 혁명 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처음 것은 문자적이었고, 마지막 것은 영적이다.

미국 남북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었고, 말세에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 전쟁은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의 등장을 알렸는데, 그는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을 상징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라는 오래된 친노예제 정당에 맞서기 위한 반노예제 정당으로 탄생했다. 그 정치적 논쟁은 남북전쟁과 링컨의 대통령직을 낳았다. 그러므로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을 남북전쟁과 분리할 수 없으며,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임박한 서막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예수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세계를 비유로 사용했다. 용의 당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이고, 민주당의 특징은 거짓이다. 이 전술의 고전적인 예는 그들이 자신들이 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베어져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마태복음 7:15-20.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가 맺을 열매를 결정하며, 민주당의 뿌리는 노예제 찬성 입장에 있다. 공화당의 뿌리는 노예제 반대 입장에 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도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주의 심판에 관하여 주와 말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나이까? 어찌하여 심히 간사하게 행하는 자들이 다 평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니,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나, 그들의 속마음에서는 멀리 계시나이다. 예레미야 12:1, 2.

다가오는 내전은, 화이트 자매의 표현대로 '돈 많은 자들'이 시장을 장악하여 각국의 부를 거두어들이면서 가난한 이들을 짓밟는다는 맥락에서 제시된다.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재력가들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헐값에 사들인 뒤, 크게 올린 가격으로 판다. 이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결국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5권, 305쪽.

링컨의 시대에 벌어진 남북전쟁은 말 그대로의 전쟁이었고, 실제 노예제 문제를 다루었다. 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글로벌리스트들은 마지막 시대에 중산층을 없애려는 그들의 노력에 근거한 내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초부유 엘리트와 극빈한 농노만 남기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중산층이며, 그것이 사라지면 봉건제 도입에 맞설 완충 장치가 없다. 프랑스 혁명의 주된 성과는 봉건제를 종식시킨 것이었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중산층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재도입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들의 계획은 대체로 중산층을 불법 이민자들로 채워 넣는 데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생산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며 국가 복지 제도를 확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대공황 시기에, 로마 가톨릭 신부인 찰스 코글린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청취자에게 전달된 라디오 방송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라디오 방송은 가까운 과거의 러시 림보가 지닌 영향력에 비견되었다. 코글린은 라디오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처음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뉴딜을 지지했다. 종종 선동적이고 논쟁적이었던 코글린의 라디오 방송은 그를 미국 정치에서 분열을 낳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규모가 크고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견해로 여러 방면에서 비판과 규탄을 받기도 했다.

코글린의 초기 정치, 경제, 사회적 견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 채택되어 그의 뉴딜 정책의 청사진이 되었고, 그 정책은 점점 비대해지는 사회보장 제도와 미국의 복지 제도라는 폐해를 도입했다. 그의 뉴딜 정책은 그의 유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예언적 시나리오의 한 요소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시행으로 인해 대공황은 미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루스벨트는 민주당원이었고, 따라서 용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계화주의자였다. 그가 도입한 뉴딜 정책은 국민을 초부유층과 초빈곤층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였다. 남북전쟁 당시의 실제 노예제는 오늘날 워프 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영적·경제적 노예 상태를 나타낸다. 현대 바빌론의 세계화주의 억만장자 상인들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루스벨트의 뉴딜을 완수하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불법 이민에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제3차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될 최후의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대통령이 마련한 복지 의존 프로그램의 위기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감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또한 말세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다.

오늘날 사회의 현 상태를 낳은 근본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육자와 정치가들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 국정을 맡은 이들은 도덕적 타락, 빈곤과 빈민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 운영을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강탈과 갈취로 막대한 부를 모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희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의 삯, 곧 너희가 속임수로 가로챈 그 삯이 부르짖고,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향락을 누리며 방탕하였고,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를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3-6." 증언, 제9권, 13.

마지막 대통령은 "국정의 고삐를 질" 것이지만, 그는 "도덕적 타락, 빈곤, 'pauperism',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그는 "기업 활동을 보다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말세의 은행가들과 억만장자 상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pauperism'은 지방정부나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빈민 구제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많은 사회에서 'pauperism'은 사회적 낙인과 연관되었고, 빈곤을 겪는 이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로 이어지곤 했다. 미국 역사에서 'pauperism'을 낳은 프로그램은, 빈곤에 갇힌 이들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구제하려고 설계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빈민들을 경제적 노예 상태에 붙들어 두는 정부 복지 체제를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나온, 일곱 번째 왕국(유엔)이 세상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증거를 제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채택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역할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의 은행가들과 상인들이 봉건 제도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밝혀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 즉 세계 단일 정부, 초부유층이 초빈곤층을 지배하는 경제 체제,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만 참여를 허용하는 단일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과 전쟁 중인 용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내는 논리는, 문제 해결에 임하는 방식에서 독재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대통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마지막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규정한 예언적 환경을 식별하고 있을 뿐이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그녀가 일요일 법령 이전에 "현세적 변영"이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한 대쟁투의 한 대목을 인용하였다. 그 대목은 말세의 많은 예언적 특성을 지적하며, 그녀가 제시한 논점들은 미국에서, 그리고 이어 전 세계에서,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시험의 때에 그 성취를 이룬다. 그녀는 사탄이 세상을 사로잡는 데 사용하는 두 가지 쟁점을 심령주의와 일요일 신성시로 지목한다. 사탄이 사용할 치유의 이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예언적 쟁점을

지적한다.

영혼의 불멸과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사상이라는 두 가지 큰 오류를 통해 사탄은 사람들을 그의 미혹에 빠뜨릴 것이다. 전자는 심령주의의 기초를 놓고, 후자는 로마와의 공감의 유대를 형성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앞장서서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고, 또 깊은 구렁을 넘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짓밟는 일에서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 이름뿐인 기독교를 더욱 밀접하게 모방할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울무에 빠뜨리는 힘이 커진다. 사탄 자신도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 변장한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을 매개로 기적이 행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며, 부인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들이 성경에 대한 신앙을 공언하고 교회의 제도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의 구별선은 이제 거의 식별되지 않는다. 교회 신자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그들과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탄은 그들을 한 몸으로 결속시키기로 작정하여 모두를 심령주의의 대열로 휩쓸어 넣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 한다. 기적을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징으로 자랑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쉽게 속을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될 것이다. 교황주의자들, 개신교도들, 그리고 세속인들 모두가 경건의 능력 없이 그 형식만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 연합에서 세상의 회심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천년왕국의 도래를 가져올 위대한 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을 통해 사탄은 인류의 은인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 신앙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 일한다. 그의 유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절제의 상실은 이성을 폐위시키고, 감각적 방종과 분쟁과 유혈 사태가 뒤따른다. 사탄은 전쟁을 기뻐한다. 전쟁이 영혼의 가장 악한 정욕을 자극하고, 악과 피에 절어 있는 희생자들을 영원 속으로 휩쓸어 가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도록 선동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쟁투, 588, 589쪽.

사탄은 자신의 정점의 행위를 일요일 법령 때에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아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미국이 용처럼 말한 뒤, 13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또한 화이트 자매가 지적한 바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스스로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을 가로질러 뻗어 로마 권세의 손을 붙잡고, 또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며,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대비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일요일 법령 이전에,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이자 모든 이상이 그 효력을 발하는 그때에, 거짓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는 용의 권세의 현상이 드러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음녀는 모든 민족을 미혹하는 자로 묘사된다.

등불의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큰 자들이었으며 네 주술로 만국이 미혹되었음이라. 요한계시록 18:23.

"sorceries"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harmakeia"로, 의약 또는 약학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 G5332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약, 즉 주문을 걸게 하는 물약); 약장수 또는 약사 또는 독살자"를 의미합니다. 일요일 법률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날들에,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물려받을 분열적인 환경에 기여할 한 가지 쟁점은 앤서니 파우치로 대표되는 제약 산업의 활동과 중국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파우치와 중국은 둘 다 용의 권세의 대표자들이다. 그리고 파우치의 지문은 HIV 바이러스의 발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들로 대변되는 인구 통제는, 모세의 때에 유아들을 말살하려 했던 바로의 시도와, 그리스도의 때에 동일한 일을 행하려 한 헤롯의 노력 속에 드러난 속성이다. 인구의 절반은 중국 바이러스에 미혹되었고, 여전히 어떠한 바이러스도 막지 못하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사탄은 또한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일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려 한다. 그는 자연의 실험실의 비밀을 연구해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연의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 그가 욕을 괴롭히도록 허락되었을 때, 양 떼와 소 떼, 종들, 집들, 자녀들이 얼마나 신속히 휩쓸려 갔는지, 마치 한순간에 재난이 잇따라 밀려온 것과 같았다. 피조물들을 파괴자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 왔고, 주께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이 땅에서 그분의 복을 거두시고, 그분의 율법에 반역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시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는 자신의 계락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번영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재난을 가져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믿게 만든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의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면서도, 그는 병과 재난을 가져와 번성한 도시들이 폐허와 황량함으로 전락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도 그는 활동하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재난들, 대화재, 맹렬한 토네이도와 무시무시한 우박 폭풍, 폭풍우, 홍수, 사이클론, 해일, 지진 등, 모든 곳에서 그리고 천 가지 모습으로 사탄은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익어가는 곡식을 휩쓸어 가고, 그 뒤로 기근과 곤궁이 따른다. 그는 공기 속에 치명적인 독기를 스며들게 하여 수천 명이 역병으로 쓰러진다. 이런 재앙들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더욱 참혹해질 것이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고', '오만한 백성들은 ... 기운이 쇠한다. 땅도 그 주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니,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사야 24:4, 5.

그 큰 기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그 계층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범법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되는 이들에게 모든 고난의 책임을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선언될 것이며, 이 죄 때문에 재난들이 임했으니 일요일 준수가 엄격히 시행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4계명의 요구를 제시하여 이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백성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을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에게 제기되었던 그 비난이, 마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니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17, 18. 거짓 고발로 인해 백성의 분노가 격발되면, 그들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할 것이다.

"심령술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이들을 대적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영들의 전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일요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깨닫게 하시려 한다고 선언하며, 국법이 하나님의 법처럼 순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큰 악을 탄식하며, 타락한 도덕 상태가 일요일의 모독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종교 교사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큰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대쟁투, 589, 590.